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 60점, [문항 2]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을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서론은 쓰지 말고 본론을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논술고사(인문계열)

[문항 1] (가)에서 밑줄 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른 뒤 (나)~(마)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시오(정당화에는 자신의 주장,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되, 재반론에는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하지 말 것).

(1,000자 ± 100자, 60점)

(가) 오늘날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인류를 포함한 다수 생물체의 멸종을 앞당기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 있으며, 따라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최대한 빠르게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 사회는 탄소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기에 탄소배출을 규제하자는 것은 사실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정도와 범위가 매우 큰 기체로 배출과 동시에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온실가스의 이런 확산성으로 인해 선진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에, 일부 국가의 감축 노력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대기 중에 축적되어 계속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온실가스의 축적성으로 인해 기후 변화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시간상으로도 서로 다르게 된다. 가령 오늘 우리가 편리한 생활방식을 누리기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과도한 탄소배출은 비가역적이면서도 전 지구적인 기후 재난을 유발하고, 그 피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저개발국가와 미래 세대 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다.

유엔은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국가별 이해를 초월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고, 이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COP3)와 파리기후협약(COP21)이 1997년과 2015년에 각각 채택되었다. 먼저 시작된 교토의정서는 기후 변화에 책임이 큰 주요 38개 선진국에 강제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협약이었다. 선진국에만 1990년 대비 평균 5.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 때문이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중국과 인도 등에는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미리 설정한 뒤 관련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하향식 이행을 의무로 부과했기에, 여기에 반발한 일부 선진국들은 중도에 탈퇴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참여 당사국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설정과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쉽게 전 세계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자율적 이행에 합의한 주요 당사국들인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 등도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기후 협정으로서로는 최초로 포괄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미국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제법적 구속

력이 없는 자율적 협약만으로는 선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후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지난 30년간 머리를 맞대고 강제적이건 자율적이건 서로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협약 모두 기후 변화에 관한 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강제적 규제와 자율적 이행 가운데 어느 방안이 기후 변화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사회·문화』 활용

(나)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 가령 가로등 불빛은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지닌다. 이런 성질로 인해 시장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로등 불빛을 구매하지 않았어도 사용을 막을 수 없기에 기업이 가로등 불빛 생산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재는 복지 증진의 중요 요소이기에 시장을 통한 공급이 어렵다고 해서 공공재의 혜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체가 나서서 공공재를 공급하고 유지해야 한다. 공동체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필요를 먼저 파악한 뒤, 우선 공급해야 할 항목을 선정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로등 설치 요구와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 요구는 각각 가로등과 보도블록에 대한 필요로 파악된다. 이 두 공공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야간 범죄와 보도블록 파손에 의한 사고 건수를 파악하여 필요한 재화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각 구성원은 그 공급 과정에 협조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재 공급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강한 동기를 갖기 쉽다. 공공재 공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어떤 구성원은 이기적 동기로 협조하지 않고 그 결실만 누리려 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사용하여도 비용을 지불한 다른 구성원이 해당 공공재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어 이기적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 외에도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신의 기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참여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소수 구성원의 비참여는 공공재의 효과적인 공급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가 자신의 도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동기에 따라 공공재 공급 및 유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공재 공급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하여 그 재원으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이런 강제적 조치를 통해서만 공동체는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활용

(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결과에 근거해 판단한다. 이 도덕 이론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때만 해당 행위는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된다. 밀(John Stuart Mill)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로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밀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이유로 공정한 임금 책정과 근로

조건의 개선을 지지했다.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밀 사상의 중심에는 자율성이 있다. 밀은 인간 본성을 기계가 아닌 나무에 비유하면서 인간은 정해진 틀에 맞춰 작동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재된 힘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밀은 자율성의 토대를 국가가 앞장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에 따르면 국가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개인이 다양한 사고능력을 키우고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시민들이 정치적 논의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밀이 자신의 사상에서 자율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 본질적인 능력이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을 위한 선택을 내릴 때 그 개인의 역량, 선호, 환경에 최적의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다른 결정들보다 그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의 재능, 관심사, 경제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진로 선택은 다른 선택들보다 그 청년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개인의 여건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자신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은 외부의 명령과 강제적 복종이 아닌 당사자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실행이다. 당사자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실행할 때 그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좋은 목표를 선택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을 것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개인의 이익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하나의 집단적 개체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유효한 주장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활용

(라) 생태주의자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을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미래 유산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자연에 대한 이타적 생명애를 강조했다. 이타적 생명애란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로까지 포용과 연대를 넓혀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인간에 그치지 않고 동물, 식물, 미생물, 암석, 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헌신적으로 환대하는 보편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타적 생명애에 담겨 있는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착 능력은 모든 것들의 터전인 지구가 파멸로 치달는 상황을 넘어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타적 생명애를 토대로 자연과 인간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된다. 하나는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환경 재생 프로젝트다. 일례로 일본 나오시마섬 재생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섬 관계자들은 금속제련소 때문에 황폐해진 공간을 누구에게나 유익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한 미술관은 자연과 인간의 친화성 제고를 위해 자연 특유의 빛과 풍경, 인공 조형물을 한 곳에 담아내는 동시에 산의 능선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 대부분을 땅속에 배치했다.

또 다른 방식은 자연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보전하는 재야생화 프로젝트이다. 독일 에칸페르데 시민들은 북부의 풍요로운 생태환경인 비오톱을 보전하기 위해 남서부로 많은 주택과 산업 시설을 이주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였다. 시민들은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갈 지역을 정해서 풀과 나무를 심었으며, 땅속으로 매립되거나 복개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에칸페르데 시민들은 생태환경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재생 프로젝트와 재야생화 프로젝트는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간적·금전적 희생 덕분에 성공했다. 나오시마섬 주민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과 예술 작품을 자연 속에서 하나로 통합했다. 에칸페르데 시민들은 자연 친화적이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주택 건설 등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연과 풍경을 바람직한 원래의 모습으로 재야생화했다. 결과적으로 두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것은 이타적 생명애를 실천한 덕분이었다. 다시 말해 자연을 모든 것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인식해야만 대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독서』 활용

(마) 코로나가 발생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급속히 증대되자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엄격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전달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번 쓴 뒤에는 이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하며, 증상자는 집에 있건 외출을 하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 실내에서 증상자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보균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밀이 차단되므로 건강한 사람들까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창궐에 따라 생활 환경이 매우 나빠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된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구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던 정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 금지, 강제 격리 조치 등 기본권 제한을 긴급히 단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추고 희생자 수도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의료 일선에서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이력을 전산화하여 소수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사태를 방지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집합 금지 및 강제 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공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이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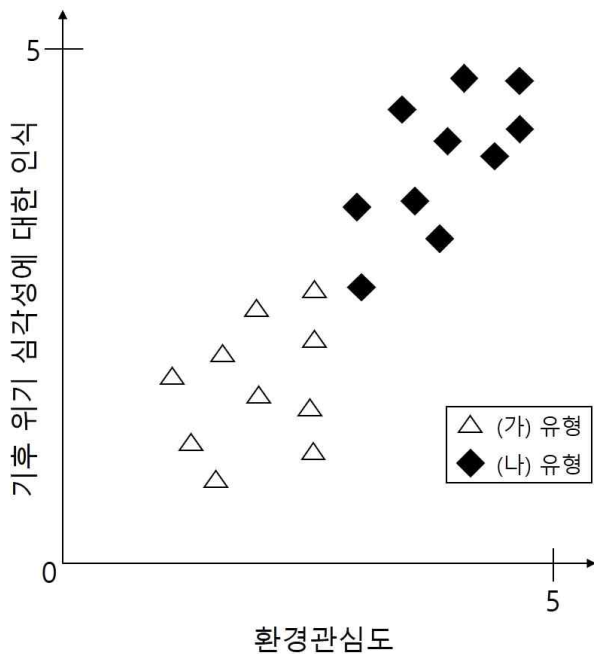
[문항 2] <다음>의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고른 뒤, 그것이 (자료 1)의 (가) 유형과 (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신이 고른 입장에 대해 (자료 2)를 활용하여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료 3)을 활용하여 그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60자, 40점)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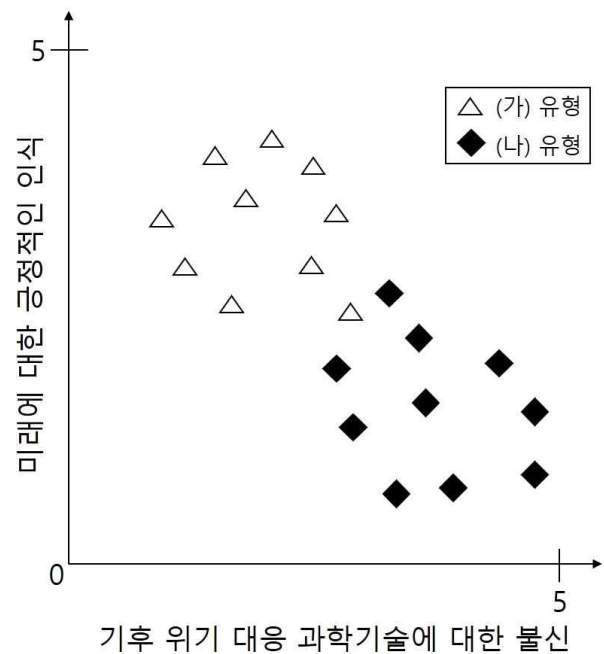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 비관론자와 기후 위기 회의론자로 나뉜다.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후 위기는 과도한 인간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과학기술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는 자연스러운 지구 활동의 일부라 여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 1)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두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환경관심도,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5'(매우 높다)부터 '1'(매우 낮다)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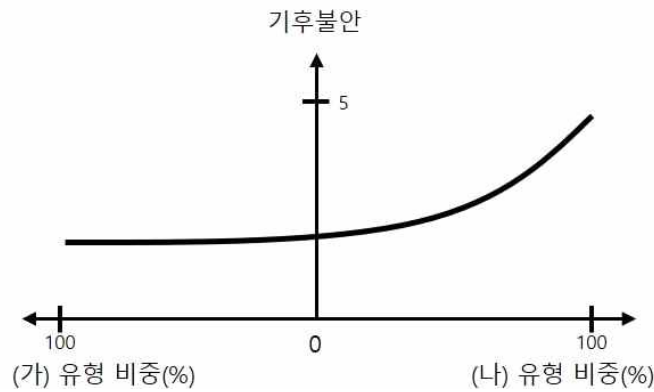


<그림 2>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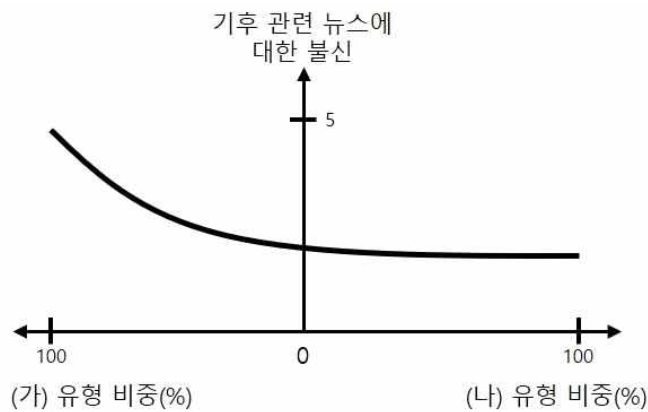


(자료 2) <그림 3>~<그림 5>는 (가) 유형과 (나) 유형의 비중이 각각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다음 지표의 변화로 예측한 것이다. 기후불안은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또는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보도 매체가 기후 위기를 과장한다고 여기는 불신 정도를 '5'(매우 그렇다)부터 '1'(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지구생명 지수는 197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생물 개체군의 평균 개체수를 수치화한 생물다양성 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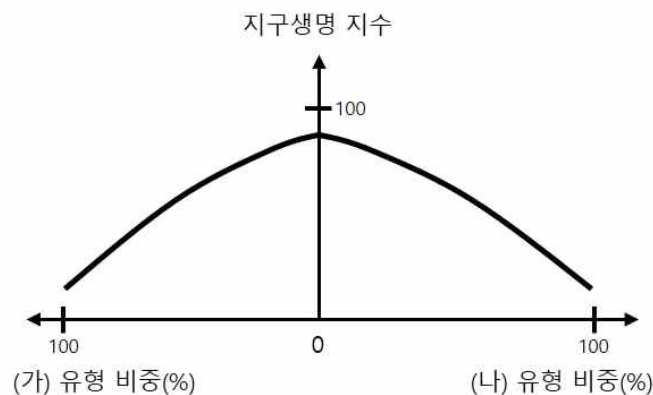
<그림 3> 기후불안



<그림 4>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그림 5> 지구생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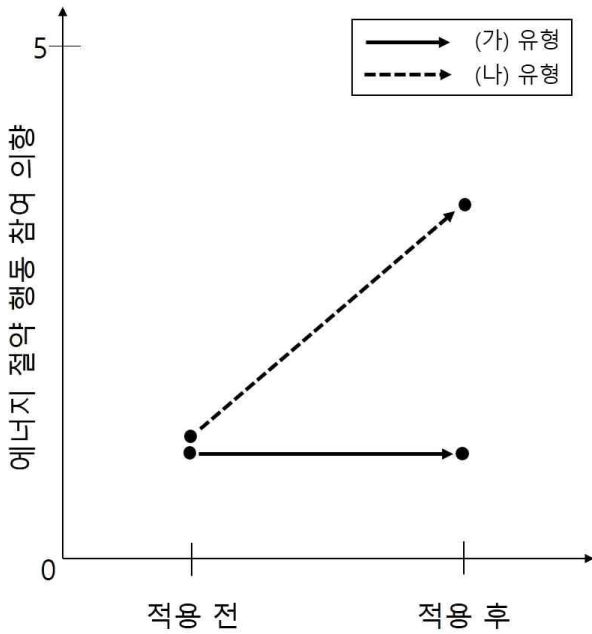


(자료 3) 기후 변화 대응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놓고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 A 방안: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
- B 방안: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적극 홍보

<그림 6>은 (가) 유형과 (나) 유형에 속한 사람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A 방안을 적용하기 전후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을, <그림 7>은 (가) 유형과 (나) 유형에 속한 사람 중 일부를 다시 무작위로 추출하여 B 방안을 적용하기 전후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을 '5' (적극 참여하겠다)부터 '1'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사이의 값으로 측정하여 평균한 결과다.

<그림 6> A 방안 적용 전후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



<그림 7> B 방안 적용 전후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

